

2026년 한국경제 전망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tklee@hri.co.kr)

- I. 들어가며
- II. 한국경제 전망
- III. 전망의 리스크 요인
- IV. 결론

1

■ 국문요약 ■

2025년 한국경제는 내수 침체와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외수 불확실성으로 저성장 위기를 겪었으나, 최근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2026년 한국경제는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내수 회복을 통해 성장률이 2025년(1.0%) 대비 1.9%로 반등할 전망이다. 민간 소비가 개선되고, 장기 침체를 겪었던 건설투자도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자 부문의 부진으로 내수 회복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른 2차 글로벌 관세 전쟁 등이 한국경제의 회복을 제약할 우려도 상존한다. 2026년 한국경제는 어렵게 만들어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활용해 정상적인 경제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동시에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경제 전망, 국내외 리스크 요인

I. 들어가며

장기 불황 국면에 간헐 있던 한국경제가 침체 국면 탈출을 시도 중이나, 확실한 경기 회복 신호를 발견하기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완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다소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며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반등했다. 하지만 현재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지표를 살펴보면 아직 경기 회복에 대한 불

II. 한국경제 전망

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한국경제는 내수 회복을 통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의 복귀와 경제성장 잠재력 복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1. 주요 여건 점검

(1) 세계 경제 여건

트럼프 통상 정책 영향으로 국제교역 환경 악화가 예상되나, 글로벌 금융여건 개선과 주요국의 재정 확대 등으로 2026년 세계 경제는 우려와 달리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IMF 3.1%, OECD 2.9%로 2025년 대비 각각 0.1%p, 0.3%p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세계 교역 증가율을 IMF는 올해 대비 1.3%p 감소한 2.3%로, OECD는 올해 대비 1.9%p 감소한 2.3%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경제는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로존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어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책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현재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2.0% 내외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로존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및 내수 확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일본은 성장률이 다시 1% 미만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 성장세 약화가 다른 주요 신흥개도국 성장 효과를 상쇄하면서 2025년보다 소폭 둔화되어 2026년에는 4.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다른 주요 신흥개도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별 성장 차별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주요 전망기관들의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2026년 세계 경제 전망

| 구분 | IMF(2025.10) | | OECD(2025.12) | |
|----------|--------------|-------|---------------|-------|
| | 2025년 | 2026년 | 2025년 | 2026년 |
| 세계 경제성장률 | 3.2 | 3.1 | 3.2 | 2.9 |
| 선진국 | 1.6 | 1.6 | 1.7 | 1.7 |
| 미국 | 2.0 | 2.1 | 2.0 | 1.7 |
| 유로지역 | 1.2 | 1.1 | 1.3 | 1.2 |
| 일본 | 1.1 | 0.6 | 1.3 | 0.9 |
| 신흥개도국 | 4.2 | 4.0 | 4.4 | 3.9 |
| 중국 | 4.8 | 4.2 | 5.0 | 4.4 |
| 인도 | 6.6 | 6.2 | 6.7 | 6.2 |
| 브라질 | 2.4 | 1.9 | 2.4 | 1.7 |
| 러시아 | 0.6 | 1.0 | - | - |
| 세계 교역증가율 | 3.6 | 2.3 | 4.2 | 2.3 |

주: OECD의 선진국은 OECD 회원국, 신흥개도국은 비OECD 회원국임
 자료: IMF, OECD.

(2) 국내 경기 여건

최근 국내 경기는 장기 침체 국면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탈출 속도는 미약하고 확실한 경기 회복 신호도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소비 쿠폰 효과 등에 힘입어 전기비 1.3%, 전년동기비 1.7%를 기록했다. 수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기비 기준 민간소비(1.3%), 설비투자(2.6%), 건설투자(0.6%), 수출(2.1%) 등 모든 부문이 증가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2024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여 여전히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월 들어 재차 하락하면서 아직 경기 저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월 현재 99.0p로, 지난 7월 이후의 2개월 연속 상승세가 중단되는 모습이다. 또한, 미래의 경기를 예고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그동안의 상승 추세를 끝내고 횡보하고 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월과 10월에 들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서 경기 방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2025년 3분기 기준 현재 경기 국면은 회복 국면에 일정 부분 진입하였으나, 회복세를 강화시킬 확실한 모멘텀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분기별 경제성장률 및 경기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2. 2026년 한국경제 전망

2026년 한국경제는 내수 회복이 외수 부진의 영향을 상쇄하며 잠재성장률 수준(2% 내외)에 근접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경제성장률은 2025년 1.0%보다 개선된 1.9%를 기록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외수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내수 부문의 경우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설경기 회복 등이 이어지면서 2026년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여건 완화,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등으로 소비 여력이 강화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025년 하반기 이후 추경 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특히, 가계의 현재 경기판단 CSI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향후 경기전망이 장기평균(100p)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낙관적 소비심리는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노력 등으로 건설수주가 개선되며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간 침체를 지속한 건설투자는 2025년 하반기 건설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되며 향후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토목의 경우 2026년 정부 예산안 중 SOC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가 2025년 대비 7.9% 증가하고, 건축의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금리 하락에 따른 금융 환경 개선 등이 동반되면서 증가세가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수요관리 정책,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지연 등 요인의 영향 정도에 따라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에 의한 수출 감소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세는 소폭 둔화되어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조달 여건 개선, 반도체 및 IT 부문의 투자 지속 등으로 설비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활동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 변화 등이 기업 심리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생산 설비 확대 동기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표 2 2026년 부문별 경제전망

| 구 분 | 2024년 연간 | 2025년 | | | 2026년(E) | | |
|-------------|-------------|-------|-------|-------|----------|-----|------|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 경제성장률 (%) | 2.0 | 0.3 | 1.7 | 1.0 | 2.3 | 1.5 | 1.9 |
| 민간소비 (%) | 1.1 | 0.7 | 1.8 | 1.3 | 1.9 | 1.5 | 1.7 |
| 건설투자 (%) | △3.3 | △12.2 | △1.7 | △7.0 | 4.2 | 1.2 | 2.6 |
| 설비투자 (%) | 1.7 | 4.5 | △1.0 | 1.8 | 2.0 | 1.0 | 1.5 |
| 수출증가율 (%) | 8.1 | 0.0 | △1.2 | △0.6 | △2.5 | 0.5 | △1.0 |
| 수입증가율 (%) | △1.7 | △1.6 | △2.0 | △1.8 | 0.8 | 1.3 | 1.1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3 | 2.1 | 1.9 | 2.0 | 1.8 | 2.1 | 1.9 |
| 실업률(%) | 2.8 | 3.1 | 2.7 | 2.9 | 3.1 | 2.9 | 3.0 |

자료: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5년, 2026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수출증가율은 2025년 △0.6%에서 2026년 △1.0%로 감소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상호관세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 품목 관세에 따른 연관 품목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의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의 품목별 관세 인상 및 확대 등 하방 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5년 2.0%에서 2026년 물가안정목표를 소폭 하회하는 1.9%로 둔화할 전망이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 회복의 영향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등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은 내수가 회복함에 따라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에 따른 공급망 혼란 등 공급측 물가 상방 압력도 상존하고 있다.

III. 전망의 리스크 요인

실업률은 2025년 2.9%에서 2026년 3.0%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상반기 실업률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그보다 낮은 2.9%가 예상된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상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1. 내수 회복의 추진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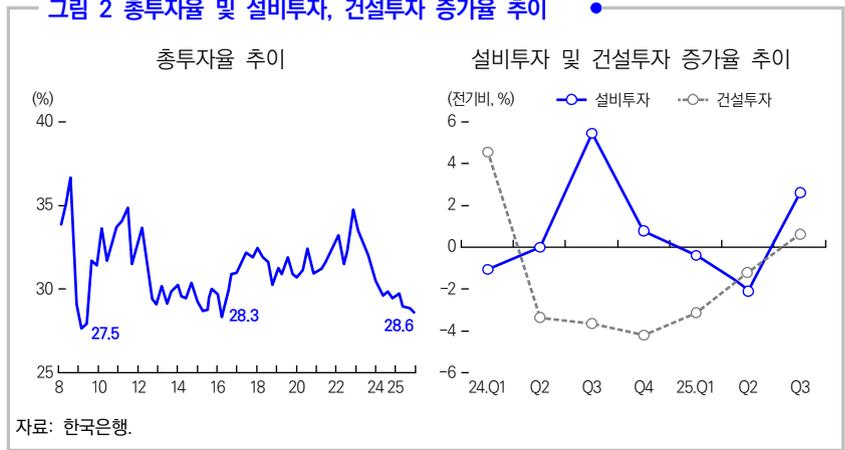
소비심리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투자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투자 부진의 부진은 향후 내수 회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다.

최근 2~3년 간 경제의 총투자율이 급감하면서 단기 성장잠재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총투자율¹⁾은 2022년 4분기 33.6%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하여 2025년 3분기 현재 28.6%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총투자율 하락은 건설투자가 장기 침체를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설비투자 부진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높은 공사비 등의 영향으로 2024년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한편, 설비투자는 2025년 3분기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 내내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 자본재 가격 상승, 주요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침체 국면이 지속되었다.

결국 이러한 투자 부진은 질 좋은 일자리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가계의 구매력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내수 회복의 힘을 약화시켜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1) 총투자율 = 총자본형성/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명목 계절조정 기준으로 계산

그림 2 총투자율 및 설비투자,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2. 글로벌 관세 전쟁 재격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 주요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일단락되면서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으나,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2차 글로벌 관세 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미국 내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대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응 시나리오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슈퍼 301조”에 의한 국가별 관세 부과 조치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등이 있다.

한편, 또 다른 불안 요인은 2026년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새로운 통상 압박 전략이 부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하원의원은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전원이 교체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수단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확산 중이고 최근 버지니아 및 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번 지방 선거 양상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생활 환경 악화, 사회 양극화 등 내부적인 이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향후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이 해외에 원인이 있다는 논리를 다시 제기하면서 새로운 통상 분쟁을 시도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

IV. 결론

2026년 한국경제는 회복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만큼 외수 불확실성은 완화되었으며, 가계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 회복을 통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어렵게 만들어진 경기 회복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 내수 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다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또한, 경기 진작과 함께 AI 대전환 및 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2026년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간신히 만들어진 모멘텀, 경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2025.09
2. 2026년 한국경제, 어둡고 긴 터널 그 끝이 보이는가?, 현대경제연구원, 2025.09
3. 경기 회복 국면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현대경제연구원 2025.12
4. World Economic Outlook, IMF, 2025.10
5. OECD Economic Outlook, OECD, 2025.12